

여행가기전 필독!



해외 피랍

이렇게 예방하세요



NIS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외교부는 해외여행 위험국가를 4단계로
분류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은 현지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들 국가에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부 여행경보지도

여행유의(남색경보) < 여행자제(황색경보) < 철수권고(적색경보) < 여행금지(흑색경보)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국제테러단체나 범죄조직 등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해외에서
한국인 피랍사건 30여건 발생

✓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단체 납치(2007년)



정부의 **사전 테러 위험 공지**를 무시하고
경고문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후 출국,
이후 탈레반에 의해 **23명 피랍(2명 사망)**



✓ 리비아에서 한국인 근로자 납치(2018년)



✓ 부르키나파소에서 배낭여행객 납치(2019년)

1

이러한 해외 납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금지국가라도
우리는 괜찮아~

여행금지국가는 **절대로 방문하지 마세요**

✓ 공무, 사업 등 특별한 목적으로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외교부의 특별허가가 필요합니다.

☞ 여권법 제26조 : 여행금지국가 방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오지'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전한 곳으로 오니
걱정없이 즐길 수 있군!

**철수권고, 여행자제 국가·위험지역의 여행을
보류하고 보다 안전한 여행지로 떠나세요**

- ✓ '오지' 또는 '위험한 곳'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의 여행을 멋있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3



알려주지 마세요!

✓ 여행지에서 낯선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 숙소, 향후 일정, 동선 등 여행 관련 정보나 가족관계, 직업, 연봉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 범죄자들이 알게 되면 납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몸값 협상에 좋은 정보가 됩니다.



귀 기울이세요!

✓ 공신력 있는 여행사 또는 현지인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 검증되지 않은 장소나 우범지역 등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세요



경계하세요!

✓ 납치나 강절도 등의 신변 위협에 대해 항상 고려하면서 주변의 사소한 변화를 경계하세요

● 낯선 사람의 과도한 호의는 사양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가온다면 자리를 피하세요



존중하세요!

✓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거스르지 않아야 하며 눈에 띄는 복장이나 유별난 행동을 삼가하세요

● 피랍 시, 절망하지 말고 구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외 피랍 예방법'
4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 하더라도
신변 안전에 항상 유의하세요**



여행금지 · 자제국가, 미리 알아보고 안전한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국가정보원은 우리 국민들의 해외 체류시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 최선의 정보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IS 대한민국
국가정보원